

## 스마트경로당에서 즐기는 온택트 콘테스트 개최

36개 스마트경로당 대상, 스마트화상회의 기반 비대면 참여형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23일부터 관내 36개 스마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온택트 콘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이후 스마트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경험을 높이고, 경로당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선은 2월 23일, 24일에 진행하고, 본선은 25일, 결승은 26일에 이어간다. “온택트 콘테스트”는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화면으로 만나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경로당 간 연결해 팀 대항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와 ‘소통’의 무게를 두고 웃고 즐기며 팀으로 어울리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 주요 내용은 초성퀴즈, OX 퀴즈, 사진 맞추기 등 퀴즈형 프로그램이며, 난이도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담을 낮춘다. 노래에 맞춰 율동 따라하기, 건강박수 등을 통해 신체 활동도 곁들여 분위기를 살린다. 이번 행사는 이동 부담 없이 함께 즐기는 여가 활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웃과 교류하는 기회가 커져 정서적 안정

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스마트 경로당 활용도가 높아지면 지역 돌봄과 공동체 기반도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본다. 남원시 담당자는 “온택트 콘테스트로 함께 웃고 소통하는 시간이 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더 넓혀 어르신 여가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가 ‘남원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스마트 행정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신승민 기자

## '26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3월 5일까지 상시 접수, 산불예방·자연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지원단이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연순환을 통한 친환경 순환농업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3월 5일까지 상반기 사업 기간 동안 상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과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파쇄지원단은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파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파쇄화상병 우려가 있거나 잔가지 직경이 파쇄 가능 기준(600원 동전크기)을 초과할 경우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 임대해 자가 파쇄를 해야 한다. 파쇄 대상은 사과·포도 등 과수 전정 가지와 고추, 깨, 콩 등 발작물 부산물이며 원활한 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는 파쇄 전 노끈, 비닐 등 불순물 제거 등 사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 우선순위는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취약농가(고령농, 장애농·여성농) △소규모 농가 △그 외 일반농가 농경지 순으로 추진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후식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는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며 “이번 사업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2차 접수 이후 미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서주 기자

## 청년주도형 소통창구 가동 청년정책협의체 출범

무주군이 지역 내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지난 23일 제4기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청년 위원 29명이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정책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 및 세부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정책들이 발굴·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라고 밝혔다.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는 무주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능동적인 군정 참여를 통해 지역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매월 1회 이상 모여 청년 이슈를 논의하는 분과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1개 이상의 청년 정책을 기획·제안하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결속을 위해 ‘청년마루’를 거점으로 청년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청년들이 만든 상품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이며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팝업 스토어’ 운영과 다른 지역의 청년 공간 및 지역 가치 창출가 성공 사례를

직접 배우는 ‘선진지 견학’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쁜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비혼·만혼 현상 완화를 돕기 위한 ‘청춘 남녀 만남의 장’도 마련한다. 10월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년축제’를 개최해 위원들이 연구·발굴한 제안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주 기자

## 루미&똥이 독자 브랜드로 콘텐츠산업 견인



순천시 ‘루미&똥이’ 캐릭터의 독자적인 상표권 확보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루미&똥이는 지난해 CJ ENM과 협업을 통해 ‘순천을 사랑하는 호기심 많은 요정’이라는 매력적인 세계관과 친숙한 비주얼로 재탄생했다. 순천시는 루미&똥이를 단순한 지자체 상징물을 넘어, 민간 시장에서도 통하는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점한 루미&똥이 캐릭터

상점(연차로 6)에는 설 연휴 기간에만 5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루미&똥이의 귀여운 비주얼은 물론, 저렴한 가격대와 높은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굿즈 라인업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오픈 라이선싱(Open Licensing)’ 정책도 추진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간단한 사용승인 절차만 거치면 루미&똥이를 활용한 상품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우덕현 기자

## 행정통합 연계 초광역 산업협력 첫 사업

전남도·광주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전라남도도와 광주광역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연계해 초광역 산업협력의 첫 전략사업으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 대응에 나서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두 시·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관계기관 주요 인사도 자리를 함께해 단지 조성에 힘을 실었다. 위원회는 선경 K-미래헬스추진단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산·학·연·방·관 각 분야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단지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중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 특별법 개정 대응과 국비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지 지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도길·전진숙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 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전남·광주는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공동 대응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추진되는 초광역 산업협력 일환이다. 전남의 화산 백신산업 특구와 광주의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헬스산업 역량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거점 조성도 기대된다. 강위원 부지사는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은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공동 대응의 시작”

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정에 대비해 전남과 광주가 가장 준비된 최적지임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백신, 면역치료제, AI 의료기기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생태계’가 구축돼 국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라남도도는 2030년까지 총 3조 1천553억 원을 단계적으로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 명, 생활인구 7천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전환에 나선다.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 980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한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바일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한다. 또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영광 백수해안, 해남 목포구등대 등 선설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

우덕현 기자

## 벼 신품종 ‘달하미’ 개발 1500ha 재배 확대

정읍시 맞춤형 품종으로 쌀알이 굵으면서 맑고 깨끗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해 기후 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정읍 맞춤형 벼 신품종 ‘달하미’를 개발하고, 올해 110ha 규모의 재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보급에 나선다. 이 품종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수요자 참여 벼 품종개발(SPP) 사업을 통해 거둔 결실이다. 육종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등이 현장 연구에 직접 참여해 정읍의 재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자를 찾아냈으며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달하미’라는 이름이 최종 확정돼 지역 상징성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참동진(전주623호)’과 ‘남찬(전주595호)’을 교배해 만든 달하미는 쌀알을 크게 만드는 유전자(gs3)를 지녀 외관이 굵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신동진’벼의 경우 흰잎마름병, 키다리병 등에 약한 특성이 있는 것과 달리, ‘달하미’는 비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해 내병성을 높인 품종이다.

또한 쌀알이 익어가는 등숙기(9~10월) 고온 조건에서도 현미 정선비율이 72.1%로 나타나, 기존 중대립 품종(25.4%) 대비 우수한 등숙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은 ‘달하미’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위해 단계

적인 재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 110ha 규모로 재배하고, 14ha의 재배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재배면적을 1500ha로 확대해 지역 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민 기자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 공모 실시

광주광역시시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에 대해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역사 반경 500m 이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정거장 역명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은 2호선 1단계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설문은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된다. 설문은 광주시가 제시한 역별로 3개의 역명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의견 수렴 대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20개 역 중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상무역), 214정거장(남광주역)을 제외한 18개 역이다. 두 환승역은 기존 1호선 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자치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전광판 및 빔고등TV, 광주교통공사 역사 내 게시판,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 지명위원회와 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립국어원에 로마자·한자 표기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6월 중 최종 역명을 확정·고시한다. 문정환 본부장은 “도시철도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는 중요한 이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23일부터 4월10일까지 건설공사장·재난취약 시설·급경사지 대상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손권일 기자